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2016.10.14(금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	담 당 자	정태호 사무관(02-2100-2833)	

**제 목 :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
해석집 배포**

- 금융위원회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시행(8.1.) 이후 금융회사들로부터 제기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(88건)을 모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서를 최종 배포함

1. 그간의 경과

- 지배구조법 시행 전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*(7.27~29)를 개최
 - * 지주 · 은행 · 저축은행(7.27), 보험 · 여전(7.28), 금투(7.29)
 - 기획합된 금융회사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배구조법 설명서 초안을 배포
- 설명회시 금융회사로부터 해석상 쟁점이 있는 질의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, 추가 쟁점사항을 포함한 법령설명서를 추가 배포하기로 함
- 법 시행 이후(8.1~10.11) 금융위 · 금감원 합동 법령해석 컨설팅팀을 통해 총 217건의 법령해석 질의를 취합하여 212건을 기회신하였으며,
 - 법령해석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3차례 개최(9.1, 9.8, 10.12)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방침을 마련
-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, 법 적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들에 대하여 해석 방침을 확정하여 최종 배포함

2. 주요 해석 사례

- ❶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(설명서 7번)
- * 법 §13 :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

⇒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됨

- ②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, 누적 재직기간(6년 제한)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(설명서 12번)
- * 법 §6 :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, 그 계열회사를 합산하여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음

⇒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를 겸직한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음*

- * (예)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3년 임기로 동일한 시점에 겸직하는 경우,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기산

- ③ 기존 위험관리책임자를 지배구조법상 절차를 갖추어 재선임하는 경우
그 임기는 새로이 2년을 부여해야 하는지 (설명서 75번)
* 법 §25 :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함

⇒ 재선임시 기존 임기 개시시점부터 2년을 보장*하면 법상 2년간 임기 보장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가능

- * (예) '16.1.1일 임기를 개시한 위법관리책임자를 '16.10.1일 재선임한 경우 그 임기는 16.1.1~17.12.31일까지 보장

-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 여신 및 투자심사 업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(설명서 77번)

- * 법 §29, 영 §24 :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등을 겸직할 수 없음

⇒ 본질적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*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 가능

- *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,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(지배구조법 §28①)

- 다만,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부서를 직접 관할하거나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금지

※ 해설서를 통해 검직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최대한 명시하여 배포

⑥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반드시 별개의 2개 부서여야 하는지 (설명서 85번)

* 영 §19, 영 §22 :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

⇒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은 반드시 별개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*,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각각 지원하기에 충분한 전담인원을 배속하면 됨

* 다만,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겸하는 부서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

3. 향후 계획

☐ 지배구조법 법령해석 컨설팅팀(금융위·금감원)을 통해 업계의 추가 질의사항에 지속 대응 (~10월말)

☐ 법 시행 과정에서 개선·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T/F 등을 통해 법령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

※ < 별첨 >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